

성화의 정의: 성화는 규정이나 공식이 아니다

살전4:3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강해 43회 마침, 6장이지만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나도 많이 배움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 앞부분 구원, 칭의, 후반부: 성화

에베소서 앞부분: 우리의 영적 재산(1:3), 특히 이방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 예수님의 내 교회(마16:18), 이후 교회 시대

후반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성화는 Sanctification, 거룩히 구별된다는 의미이다.

살전4:3,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뱀전1:14-16

시간적으로 성화는 세 단계가 있다.

1. 위치적인 성화(과거),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구별되었다.

2. 일상생활에서의 점진적 성화(현재),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3. 영원에서의 성화(미래), 미래의 천국에서는 100%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오늘부터 몇 시간은 두 번째 즉 일상생활에서의 성화 다시 말해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점진적
성화와 영적 전쟁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에베소서 영적 전쟁 부분을 준비하면서 3권의 책을 발견함

저자는 데이비드 폴리슨(1949-2019, 70세), 하버드 대학 학부, 웨스트민스터 대학(목회학 석사),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상담 심리학), 평생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며 위로하는 일을 함

이 분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중 한 명, 폴 트립 등과 교제

일상의 성화, 일상의 영적 전쟁, 악한 분노 선한 분노 (토기장이 *, *)

이 책들은 크리스천 삶의 문제를 공식이나 규정처럼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고리타분한 관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유익을 주는 통찰력을 많이 제시한다.

오늘부터 몇 시간, 그의 책 성화, 영적 전쟁, 분노 등 설명하려고 한다.

오늘 < >, 데이비드 폴리슨, 나보다 훨씬 좋은 교사, 따라가면서 핵심을 전하려고 한다.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 주신다.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이 신학적으로 구성한 하나님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전자가 중요하다. 전자를 모르고 후자만 알면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울이 대표적인 사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성화가 발생하는 과정은 다 다르다. 특히 구원 이후 천편일률적으로 성화의 규정이 있어서 이 방식대로
하면 모두가 성화될 수 있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폴리슨 이야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총 21장, 맨 마지막 절은 참으로 다른 데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사도 요한, 아마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65년 정도를
더 살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2,3서, 계시록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AD 90년 이후 즉 다른 모든 기록보다 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요21:25에서 그는 자기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일생 동안 목격한 것들을 돌이켜보며 마무리한다.

(요21:25)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날날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기록한다면 지구에 그 기록들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가! 물론 이것은 문장 표현 기법의 하나인 과장법으로 볼 수도 있다(히11:32).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요한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록되지 못한 그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는 그 이야기들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에 기록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유사할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신 사건과 예수님이 그들과 나누신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탐구자들, 예수를 따르지 말지 주저하던 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된 삶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 이론이 아니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보고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 간다. 미처 기록되지 못한 것들도 역시 예수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온 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고 했을까?

어떻게 해안가 모래보다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이유: 개개인의 인생사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환경과 형편이 모두 다르다.

한 사람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일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 고유한 순간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차이와 고유성을 헤아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말들,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개수,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놓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한명 한명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물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다양함과 고유함뿐만 아니라 공통요소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에 개입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 그중 하나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불순물인 죄들을 제거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의 공통점만큼이나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특성과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독특한 개개인의 특수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침례자 요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자기 어머니, 손님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과정 중 종교인들을 대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최고의 권력자지성인인 니고데모를 만나는 모습, 그의 변화에는 아마도 2-3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음행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그녀의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것,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연약한 사람의 치유

요한복음 6-7장,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8장,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응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요한복음 18장,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용서하고 새 사명을 주시는 것

동일하신 예수님,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각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시는 것,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 역시 다양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할 때 반복적으로 확대 및 축소하거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주기도 하고 몇 마디 대화에 일정 시간 머무르거나 특정 상황과 장면에 주목하기도 한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들을 우리도 함께 듣는다.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 질문들에 답변하시는 것도 본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시는지를 보고 배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

의 일에게 관여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자극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결단시키시고 당황스럽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경고하시고, 격려하시는지를 본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살살이 드러내신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예수님께 반응할 때 사람들은 변화된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좋지 못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삶이 더 거룩해져 간다'고 말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다.

2. 성화에 대한 오해

무언가를 공부하려면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성화도 마찬가지로 성화, 성도, 거룩함, 경건과 같은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무언가 특이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연상한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본래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일들, 현실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성화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교회에 자주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매일 새벽기도, 주중에도 많은 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송도의 어떤 교회, 매일 저녁 8시 예배)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고, 십일조, 주일성수,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잘하면 성화가 된다고 착각하고 많은 교회들이 강요한다.

특히 이단 사이비, 거의 매일 집회 모임, 다양한 규칙 준수 등

나나 폴리슨의 견해: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화를 이루려면 세상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세상 밖으로 고립되게 된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새벽기도, 매일 모임, 주일에는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녔을까?

지금 미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주일, 주중 예배, 그 외의 모임은 거의 없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충실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 성도들의 성화가 에베소 교인들이나 미국 성도들보다 나을까? 답: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성화란 무엇인가?

폴리슨의 말: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믿음, 믿는 바)이 더 단순명료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진다.

또한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는 것(성화)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더 중요해져 간다.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어 더 도와주고 싶어진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점진적 성화)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종교적이 되며, 평범한 일상에서 분리되어 하늘의 고상한 것들(속세를 떠나 사는 중들처럼)을 좇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즉, 삶에서 경제생활, 성생활, 직장생활을 더 지혜롭게 꾸려 나가는 것이 성화이다.

또한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 가는 것이 성화이다.

우리의 말이 더 통찰력이 있고, 더 신중하면서도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동시에 더 현실성 있게 되어 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이다.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와 필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 가는 것이다.

또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엄숙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즉,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어느 때에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더 뚜렷이 알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삶에서 주어지는 선한 것들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동시에 인생의 어려움, 고통, 질병과 죽음 등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성화, 성도, 거룩함, 경건, 신성함 등은 우리의 일상(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일상 밖의 어떤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삶에서 더 기쁨을 느끼고, 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만큼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더 지혜로워지고 삶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일상에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놓치는 것: 성화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

성화는 기도원이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난다.

현실의 다양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복잡한 문제들은 복음, 인생, 인간관계, 사역을 더 생명력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수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4. 예수님은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를 만나신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을 헤아리며 우리를 만나시기에 우리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떤 틀이나 공식을 따라 기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개인과 그들의 환경은 절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관계와 그 관계로부터의 가르침은 모두 다르다.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성화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일반화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 하면 돼"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은 잘못된 것이다.

왜? 개개인과 각자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만나 주십니다'라는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다. 진짜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어떤 만병통치약같이 획일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결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 상황을 모두 파악하시며 우리에게 접근하신다.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만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교회, 교단, 목사의 방법대로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과 공식 등 No!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려는 솔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의 이야기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선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에게는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히스기야를 읽고 읽고 또 읽는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배우고 선하게 바뀌려고.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는 중요하다.

성화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더 좋게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변화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이런 아름다움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한다.